

[기고] 청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초자산'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이재경 지사장

한국영농신문

승인 2026.06.08 23:08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이재경 지사장

의령 땅은 예로부터 강직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임진왜란의 어둠 속에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홍의장군 곽재우. 그는 사리사욕 없이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의병을 모았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그 정신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청림'이라 부르는 가치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이 땅이 품어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청림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산으로 삼고자 한다.

공공기관에서 청림이란 단순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과 행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 의령은 대규모 농업단지보다 소규모 농촌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고령

의 농업인들이 오랜 세월 땅을 일구며 살아온 이 작은 마을들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 그 어떤 도시보다 훨씬 크게 울린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행정,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이 의령지사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청렴하지 않은 행정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거창한 구호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 현장을 찾아가는 직원의 성실한 발걸음, 어떤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업무 처리, 주민과 나누는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 속에서 조금씩 쌓여간다. 청렴은 결국 농업인이 공사를 믿고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이며, 그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곽재우 장군이 의로움 하나로 이 땅을 지켰듯,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청렴이라는 가치 하나를 굳게 붙들고 의령 농업인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청렴한 오늘이 쌓여, 의령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내일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